



“복음을 선택하는 우리들”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206-362-2278 | 연령회: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홍광철 세례자 요한

성체와 성혈은 예수님의 몸과 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성체성사”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최후의 만찬 때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대사제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생명의 빵이 되시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 제사의 제물로 바치셨고, 그 제물을 음식으로 나누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어린양”이 되었습니다. 어린양이 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생명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기도하고자 할 때 자신들이 귀중히 여기는 것을 사제에게 가져갔습니다. 대부분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대개 양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사제는 양을 제단으로 끌고 가 하느님께 봉헌하기 위해 양을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양을 봉헌한 이들은 그 양을 바라보며, “주님, 이 양을 저와 같이 여기소서.”하며 기도하며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양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린양의 피로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느님께 서원하며,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지만 이제 어린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제단 위에 올려지셨고, 피로 움에 허덕이셨고, 마침내 아버지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단 위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높이 들어 올려진 우리의 새로운 어린양이십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요한

1,29)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제가 성찬의 전례를 거행하면서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주시는 성자의 수난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 있는 이 재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사제가 하느님 아버지께 이 새로운 양을 봉헌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새로운 어린양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한다는 것은 결국 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머무시

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성체를 모시는 일이 없어야 하며, 성당 안에서 내 행동을 더욱 경건하게 해야 하며, 감실 앞으로 자주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노래하는 것처럼 “나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구원의 잔을 들고서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네.”(시편116,12-13)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받아들인 십자가 희생 제사를 기념하고 재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미사 중에 당신의 몸을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성체를 모심으로써 주님과 하나 되고, 성체를 모심으로써 소죄를 용서받고, 더욱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체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미사 안내

주일미사 (토요일 저녁) 오후 7:30
(주일) 오전 8:00 / 10:00
오전 11:30 (학생)
오후 6:00 (청년)

월 오전 10:00

수/목/금/토 오전 10:00

화/수/목/금 오후 7:30

성사 안내

환자 봉성체 매달 첫 목요일 오전

병자성사 구역장을 통해 신청

성체강복 매달 첫 목요일 저녁미사 후

예비신자교육 (주일) 오전 8:20

학교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00

YG (고등부) (주일) 오전 10:00

한국학교 (금) 오후 7:00
(토) 오전 9:30

안드레아 문화대학 (주일) 오후 1:00-4:00

성체기적

8세기, 어느 날 아침, 성 바실리오회 소속의 한 수사 신부가 미사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에 실제로 현존하심에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빵과 포도주의 성 변화를 위한 축성을 끝낸 순간, 갑자기 제병이 살아있는 살로 변하며 포도주가 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놀란 신부는 이 사실을 숨길 수 없어서 미사에 참석한 이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들은 곧 뛰쳐나가서 란치아노 시 전체와 인근 지방들에 알렸습니다.

1970년과 1971년에 기적의 성체와 성혈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조사를 시행하였는데 해부학, 병리조직학, 화학 및 임상 현미경학 교수이며 아레조(Arezzo) 병원의 수석 의사였던 오도아르도 리놀리박사가 시에나 대학교의 인체 해부학 교수였던 유명한 로저 베르텔리 교수의 도움을 받아 3개월에 걸쳐 조사를 했습니다.

그의 발표 내용을 요약해보면 ① 성체 기적의 성혈은 참으로 피이며, 성체는 참된 살이다. ② 그 살은 심장의 근육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③ 그 살과 피는 인간의 살과 피이다. ④ 피와 살의 혈액형은 동일하다. 이것은 그 피와 살이 동일인으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혈액형이 같은 두 사람으로부터 왔을 수도 있다. ⑤ 피 안에는 정상적인 피에서와 같은 정상적인 비율의 단백질들



이 발견되었다. ⑥ 피에서는 또한 다음의 무기물들이 발견되었다. 염화물, 인, 마그네슘, 칼륨, 정상보다 약간 적은 양의 나트륨, 그리고 정상보다 많은 양의 칼슘.

교수는 다음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첫째, 이 살이 인간의 심장으로부터 해부적으로 잘라온 것일 가능성은 전무하다. 둘째, 그 살과 피를 보존하기 위하여 화학적인 방부 조치를 취한 흔적은 없다. 셋째, 그 살과 피 안의 단백질과 무기물들이 대기와 미생물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부패되지 않고 보존된 것은 절대적으로 예외적인 현상이다. 1973년에 이태리의 의사이며 생물학

자인 요셉 비온디니 교수는 세계 건강 기구에 리놀리 교수의 검사 결과를 제출하였고, 세계 건강 기구는 이 보고서의 특별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일곱 나라들로부터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리놀리 교수의 분석 결과를 조사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15개월 간의 연구 끝에 그 국제적인 과학 위원회는 리놀리 교수의 결론들을 완전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의 보고서는 세계 건강 기구의 공식 출판물들에 실을 수 있도록 준비되었고, UN 산하의 과학자들은 란치아노의 성체 기적이 “유래가 없는 케이스”이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단정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성심과 우리의 사랑

교회는 예수님의 성심을 특별히 공경할 수 있도록 성체성혈 대축일 다음 주의 금요일에 예수 성심 대축일을 지킬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성심이 성체성사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심에 대한 공경은 중세기에 와서, 이전에 소수의 신비주의자나 성인들에 국한되던 것에 비해 상당히 일반화되었고, 성 요한 에우데스는 예수성심 신심과 그 축일 제정의 신학적이고 전례인 기초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1673년 12월 27일, 프랑스 방문회 수녀였던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에게 예수님께서 발현하시어 성심 공경과 성심이 공적으로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마르가리타 마리아는, 교



회는 바로 예수 성심이 상징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리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내세우신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번째 발현에서)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마음이 지치고 녹아내릴 정도로 인간을 사랑한 성심을 보라. 그런데 나는 대부분 이 사랑의 성사에서 그들로부터 배은망덕과 냉담과 경멸을 받을 뿐이다. …나는 성체 성사에서 나를 부끄럽게 하는 미지근하고 나태한 마음이 나에게 끼친 손상을 너의 열성으로 보상하도록 내가 너에게 준 마음으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축일 제정 100주년을 기념하여 1956년 비오 12세는 예수 성심 공경에 관한 회칙을 발표하여 예수성심 공경을 더욱 구체화하였습니다.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께서 당신의 성심이 특별한 공경을 받기를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 영혼에서 당신이 얻어 주신 속량의 효과를 새롭게 하시는데 있다고 봅니다. 성심은 겸손한 이들의 마음을 채우려고만 하시는 고갈됨이 없으신 샘으로서 영혼들이 기꺼이 당신의 선의에 따라 살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이 성심에서 세 가닥의 물줄기가 중단 없이 흘러나옵니다. 첫 번째의 물줄기는 죄인들에 대한 자비의 물줄기로서 그들에게 회개와 참회의 영을 흘러 내보내십니다. 두 번째의 물줄기는 온갖 고통을 받는 이와 특히 완덕을 지향하는 이

들을 위로해 주는 사랑의 물줄기로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도움을 주십니다. 세 번째 물줄기는 주님이 당신과 합일되기를 원하시는 가장 완전한 벗들을 위한 사랑과 빛의 줄기로서 그들에게 당신의 지혜와 욕망을 전달하시어 각자의 고유한 실정에 따라 당신의 영광을 증대시키는데 그들이 완전히 헌신하게 하십니다. 이 성심은 온갖 선을 담고 있는 심연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과 연합되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회개로써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이지만 결국에는 거기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기 위함입니다.

예수 성심 성월을 보내고 있는 유월, 우리 함께 주님의 마음을 알아 드리기를 위해 노력합시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전례 상식

교회가 전례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

교회는 전례주년을 통해서 신자들이 전례 안에서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성인들을 기억하게 하고, 성인들의 삶을 본받게 합니다. 특별히 부활시기부터 성체와 성혈 대축일까지의 내용을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부활시기를 보내며 교회는 신자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40일을 보내고 주님의 승천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의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더욱 명확하게 알게 해 주었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기억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고, 성령께서 내려오셨을 때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내맡겼던 것을 기억하게 하고 현재화시켜 줍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

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서 받은 성령을 다시 느끼게 하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두근거리며 성령칠은 뽑기를 통해 성령의 뜻을 묻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성령을 체험한 교회는 그 다음 주일에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내며 성자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심을, 성령께서 하느님이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고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려 준 교회는 성체와 성혈 대축일을 지내며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체를 받아 모시게 합니다.

교회의 전례력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전례력에 더욱 관심 가져 봅시다.

공동체 소식

성경 강좌 안내

-●
- 구역모임을 위하여 사제와 수도자와 함께 하는 성경소그룹 모임을 시작합니다. 현재 각 구역에서 다니엘서, 요한 묵시록, 필리피서, 야고보서를 가지고 구역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하시고 구역모임에 참여하시면 더 큰 은총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원하시는 시간을 선택하셔서 칸디다 수녀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요일 오전 10:00 다니엘서, 요한 묵시록
- 화요일 저녁 8:20 필리피서, 야고보서
- 목요일 오전 10:00 다니엘서, 요한 묵시록
- 목요일 저녁 8:20 필리피서, 야고보서

2018년도 하늘뜨락제 물품 도네이션 안내

-●
- 하늘 뜨락제 후원금 접수 받습니다.
- 하늘뜨락제 Silent Auction 에 사용할 고품격 물품과 서비스를 6/17-7-29까지 접수받습니다.
-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형제자매님들 중 의류 도네이션 해주실 분은 사무실이나 사목회 총무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길수 미카엘 425-773-2991)

- 8월 18-19일 양일간에 걸친 하늘뜨락제 판매 물품을 도네이션 받습니다.
- 도네이션 기간 : 6/9일부터 ~8/12일까지 친교실 부엌 창고앞쪽 (지정된 표시에 따라주세요)
-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 놓지 않으신 물건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영수증 발급 : 금액은 표기하지 않고 물품의 내용만 표기해 드립니다.
- 신청서 발급 장소 : 사무실
- 각 도네이션 물품에 희망 가격을 부착하여 도네이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네이션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도네이션 하실 때 준비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은 행사가 끝난 뒤에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으신 일반 도네이션은 아무때나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 놓으시면 됩니다.

- 도네이션 금지 품목 :
- 1. 구입한 지 5년 이상된 전자제품, 가전 제품
- 2. 고장난 제품
- 3. 입던 속옷, 양말
- 4. 찢어지거나 헤진 옷
- 5. 신발

- 부피가 커서 이동이 힘든 물건은 제품설명과 사진을 소속 구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판매 가능여부를 선별하여 마사회 하루 또는 이틀전에 준비위원회에서 픽업하도록 하겠습니다.

VBS 여름 성경 학교

-●
- 일시 : 7/25-7/28 오전 9시~2:30
- 대상 : 현재 PRE k-2ND (2017-2018) 선착순 40명
- 등록비 : \$70 (형제 할인 혜택 있습니다.) 점심, 간식 제공합니다.

여름 캠프 안내

-●
- 일시 : 8/24(금) ~26일(주일)
- 장소 : Lake Retreat
- 대상 : 3학년 (2018 현재) ~ 8학년 (2018년 현재)
- 비용 : \$100 (형제 할인 혜택 있습니다.)